

‘나’ 비우면 氣찬 춤사위 저절로 ...



“ 인간과 자연의 교감에서 ‘생춤’ 탄생
연습은 무의미 즉흥적 동작 생동감 전해
구분·경계 벗어난 비움만이 진정한 춤 ”

국립무용단장 김 현 자



모든 생명에는 ‘기(氣)’가 존재한다. 자연에서 비롯된 그 기운에는 자연이 존재하는 가치와 질서가 부여돼 있다. 또 그 속에는 언어를 갖지 않은 생명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 그래서 ‘생기(生氣)’라고도 한다. 이 생기를 몸짓언어인 춤으로 15년동안 표현해 온 김현자(56·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국립무용단장. 올 1월에 새로 취임한 김 단장의 춤인생에 ‘생춤’과 ‘기춤’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생춤?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춤이 살아 숨선다는 것일까? 김 단장이 처음 시도해 브랜드화 시킨 ‘생춤’은 미리 연출된 인위적인 조작에서 벗어나 안무가의 몸속에 흐르는 기의 움직임에 따라 추는 춤이다. 그래서 생춤은 자연의 변화성과 그 생명성이 지니는 창조적 본질을 찾아 춤사위를 출몰한다. 때문에 거기서 내재(內在)하는 인간의 기는 몸이라는 춤의 주체가 지닌 단순한 에너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환경의 모든 교감위에서만 기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변화와 깨우침을 요구하며, 창작성의 자유를 시도하고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바로 이것이 생춤의 기본적인 창작 정신입니다.”

김 단장의 춤인생은 항상 변화와 실험, 도전의 역정이었다. 86년 ‘황금가지’에서 한국무용의 단아한 전통적 형태를 깬 ‘기춤’이라는 과감한 실험으로 충격을 줬다. 95년 ‘하루’에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얼음위에 앉아 움직임을 포기하는 ‘생춤’으로 논란을 빚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깬 다양한 시도 덕분일까. 그의 춤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항상 짜릿했

다. 그의 춤은 탐미적이고 실험적이었다. 흐느끼는 사지(四肢)에선 다음 동작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들림과 물입의 경지가 똑똑 떨어졌다. 하지만 생춤 공연을 앞두고 출연습을 결코 한 적이 없다. 생춤을 추기 위한 기(氣)훈련을 위해 무용수들과 한달여 기간을 합숙훈련하는 게 연습의 전부였다.

“광대무변한 우주도 자연스런 이치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데 한낱 짧은 순간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 춤사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해 반복한다는 것이 왠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동작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명상수련과 단전호흡을 통해 나오는 즉흥적인 춤사위가 오히려 관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김단장의 무대 인생 50주년을 정리하는 생춤 ‘그 물속의 불을 보다’는 좋은 예이다. 7년만의 숨고르기 끝에 선보인 이 공연에서 김씨는 안무만 맡았다. 5년전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무대에 설 수 없었고 이제 치료는 끝났지만, 부산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 9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부임하고부터 제자들 키우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생춤을 추면서 ‘비움’을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애움’ 자체가 ‘비움’이 아니라 바로 ‘무심’이 ‘비움’인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열정적인 춤꾼으로 살았던 지난 50년 세월동안 자신도 미처 몰랐던 화두가 ‘비움’이었다. 텅비어 있을때만이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물뒹겼다. 이때부터 강화 보문사, 부산 선암사, 문경 봉암사 등 여러 사찰을 다니며 ‘비움’을 화두로 삼아 수행 정진을 했다.

“구분과 경계를 떠나 스스로 춤사위에서 해방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 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에 집착

하기 보다는 기를 내면으로 끌어들이며 다독이며 나와 우주, 또 춤사위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국립무용단장 취임 후 4월 국립극장 무대에 올린 첫 창작춤 ‘바다’는 기춤과 전통춤을 조화롭게 융화시킨 생춤의 결정이었다. 전통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춤언어로 바다를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바다의 이면적 깊이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춤은 전통춤 고유의 정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전통 춤사위에서 뽑아낸 활발하고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두루 아울렀다. 살풀이로 면바다의 고요를, 택견 동작으로 바다의 격동적인 힘을 형상화했다. 그러나 모든 춤의 기본은 김 단장이 꾸준히 추구해온 기(氣) 호흡이다.

현재 김단장은 독창적인 자신의 춤세계를 가꾸고 단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용원 교수직도 3년간 휴직을 했다. 이런 김단장이 다시 무대에 펼쳐보이고 싶은 춤사위는 어떤 것일까. “처음에는 불립문자(不立文字),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위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이제는 오랜 길을 돌아 거울앞에 앉은 국화꽃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걸림 없는 춤을 만들며 춤 인생을 비워내고 싶습니다”고 여운을 남긴다.

글 =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 = 박재원 기자 jypark@buddhapia.com



◇‘생춤’을 추고 있는 김현자 단장.

김현자 단장은 1947년 진주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부터 춤을 시작한 김현자 단장은 70년 이화여대 무용과와 94년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부산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부산대 교수, 력기창작무용단 상임 안무자를 거쳐 1997년부터 무용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1996년 ‘황금가지’에서 새로운 한국창작무용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 중앙철학에 기반해 기(氣)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생춤’ 등으로 무용계에 충격과 논란거리를 던지며 독자적인 춤 양식을 다듬어왔다. 지난해 12월 신작 ‘그 물속의 불을 보다’로 ‘2002 춤 비평가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禪으로 이끄는 스승의 간곡한 편지

도도는 말이 없으나 말이 아니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은 모양이 없으나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이 곧 도이며, 모양이 곧 마음이다.

『서장교역』은 「대혜서문대혜書問」 등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대혜종교(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종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이 대혜종교는 묵조선 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은 요즘이아말로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 공부를 통하여 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 『서장』의 장점

-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 조사선이나 간화선이나 하는 말은 시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명칭일 뿐이고, 요컨대 선이란 곧 깨달음을 본질로 한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교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답변의 상태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문답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혜의 안목眼目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율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피력된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다.